도민과 함께! 미래를 만드는 제주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10월 29일 -



제주특별자치도
농 업 기 술 원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지능형 농장 관리 ‘제빛나’, 이르면 내년 농가 현장 적용-6면	미래농업육성과	삼다일보
○	스마트팜 관리시스템 ‘제빛나’ 고도화 -6면	미래농업육성과	한라일보
○	감귤 부패 피해 확산…철저한 관리 시급 -15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한라일보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출품 접수 알림 -13면	기술지원조정과	제민일보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기술지원조정과	제주매일
○	2026년 감귤 품평회 ‘온주감규’ 분야 출품 접수-13면	기술지원조정과	삼다일보
○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 맞이-14면	-	제민일보

(삼다일보: 2026년 10월 29일)

○ 지능형 농장 관리 ‘제빛나’. 이르면 내년 농가 현장 적용-6면

지능형 농장 관리 ‘제빛나’, 이르면 내년 농가 현장 적용

제주도 농업기술원이 개발한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리 시스템 ‘제빛나’가 이르면 내년 농가 현장에 적용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은 ‘제빛나’에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을 적용, 노지 감귤까지 쓸 수 있도록 기능을 높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고도화 사업은 농업인이 더 쉽게 시스템을 쓰도록 하고 그간 쌓아 온 생육 및 환경 자료와 생육관리모델을 실제 재배 관리에 활용하는 중점을 두고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지난 21일 사업 담당자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고도화 사업 중간 보고회를 열어 개발 상황을 점검했다.

보완 사항은 남은 과업에 반영, 연말까지 시스템 고도화와 기능 시험을 마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부터 농가 현장에 적용해 안정성과 활용성을 검증하고 장기적으로는 쌓은 자료와 인공지능(AI)을 연계해 작물 생육 및 농장 환경을 분석, 최적의 관리 방법을 판단·제어하는 지능형 농장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10. 29.

이정민 기자 73jmlee@samdail

삼다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0월 29일)

○ 스마트팜 관리시스템 ‘제빛나’ 고도화-6면

스마트팜 관리시스템 ‘제빛나’ 고도화

도농기원,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 적용 등 기능 확대

제주도 농업기술원의 제주형 지능형 농장(스마트팜) 관리시스템 ‘제빛나’에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을 적용하는 등 기능 고도화가 추진된다.

제빛나는 농업기술원이 2023년 개발한 제주형 지능형 농장 시스템이다. 온도·습도·토양수분 등 농장 환경 자료를 통합 관리하고 환기·물 대기 등 주요 설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다.

그동안 시설 만감류 농가를 중심으로 시스템이 적용돼 왔지만, 이번 기능 고도화를 통해 시설 레드향 생육관리모델 시스템에도 적용된다.

자세히 살펴 보면 메뉴와 화면 구성을 다시 정리하고 자료 시각화와 휴대전화 기능을 개선했으며, 관리자와 연구자가 농가를 관리하는 기능도 강화했다.

10. 29.

이태윤기자 lty9456@ih

한라일보 6

(한라일보: 2026년 10월 29일)

○ 감귤 부패 피해 확산…철저한 관리 시급-15면

감귤 부패 피해 확산… 철저한 관리 시급

감귤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최근 잦은 비 날씨가 이어지면서 수확기를 맞은 노지감귤이 나무에 매달린 채 썩거나 유통과정에서 부패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감귤 주산지인 서귀포지역에는 최근 연일 비가 내렸다. 이로 인해 극조생 노지감귤의 수확이 지연되는 것은 물론 과실이 나무에 달린 상태에서 썩는 수분증이 확산되고 있다. 또 최근 유통센터에 입고된 극조생 감귤 증 일부는 이틀 만에 약 30%가 부패했다. 내륙으로 유통하는 과정에서도 4~5%의 추가 부패가 발생했다. 올해산 노지감귤 도매가격과 포전거래 가격이 형성되는 시점에 부패 피해가 잇따르면서 감귤가격에 악영향을 줄 우려를 낳고 있다. 농정당국은 수분증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에서는 비가 그친 후 농약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등록된 저장병 방제 약제를 적기에 살포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다만 극조생 노지감귤은 현재 수확기에 접어든 만큼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과 사용 횟수 등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수확한 감귤은 2~3일간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통풍이 잘되는 곳에서 건조하는 예조 작업을 거쳐야 한다.

감귤은 제주의 주력산업이다. 지난해 감귤 조수입은 1조3071억 원으로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이다. 그런데 감귤수확기를 맞아 부패 피해가 발생하면서 가격형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감귤 제값 받기를 위해서는 수확부터 출하까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감귤가격은 품질과 유통이 좌우한다. 철저한 선별로 고품질의 감귤과 분산출하를 통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농정당국과 농가의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10. 29.
한라일보 15

(제민일보: 2026년 10월 29일)

○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출품 접수 알림-13면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출품 접수 알림

□ 대상품목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 : 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 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접수기간 : 10월 30일까지

□ 출품규격 : S-M사이즈 5kg 1박스

□ 접수 및 문의 :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762-3091)

※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참고

10. 29.
제민일보 13

(제주매일: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8면

2026년 감귤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알림

○ 대상품목: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 시상범위
 - 친환경재배: 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 접수기간: 2026. 10. 26.(월)~10. 30.(금)
○ 출품규격: S-M사이즈 5kg 1박스
○ 접수 및 문의: (사)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 서귀포시 남원읍 중산간동로 7413, 2층 / ☎ 762-3091
 *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10. 29. 제주매일 8

(삼다일보: 2026년 10월 29일)

❍ 2026년 감귤 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13면

2026년 감귤 품평회 ‘온주감귤’ 분야 출품 접수

▲대상 품목=조생(노지 및 피복재배), 친환경재배
△재배면적 500ha 이상이며 출하시기가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품종
▲시상 범위
△친환경 재배=3점(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조생(노지 및 피복재배)=4점(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1점)
▲접수 기간=10월 26일(월)~30일(금)
▲출품 규격=S-M사이즈 5kg 1박스
▲자세한 사항은 제주감귤박람회 누리집(https://www.jicexpo.com) 참고
▲문의=㈜제주국제감귤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국 762-3091

10. 29. 삼다일보 13

(제민일보: 2026년 10월 29일)

○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 맞이-14면

제주 농업의 땀과 정성으로 세계 맞이

독자기고



고 승 현

새벽이면 제주 농업인은 밭으로 향한다. 바람에 흔들린 나무를 살피고 돌을 골라내며 하루를 시작한다. 묘목을 심는 손길에는 가족의 생계와 고향의 내일이 담겨 있다. 평생 흙을 만져온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2028년 G20 정상회의 제주 유치를 바란다.

제주는 정상회담과 국제회의를 치러온 경험과 회의·숙박시설을 갖추고 있다. 평화의 섬이라는 상징성에 손님을 정성껏 맞는 도민의 마음을 더하면 제주만의 정상회의를 만들 수 있다. 세계의 정상들이 제주의 풍경과 그 풍경을 지켜온 사람들의 삶을 만나기를 바란다.

돌담 너머 감귤밭과 겨울바람을 견디는 채소에는 농업인의 땀이 배어 있다. 기후변화와 식량 문제를 논의하는 지도자들에게 농업은 살아 있는 현장이다. 가뭄과 폭우를 견디며 터득한 농업인의 지혜와 목소리가 세계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에 닿기를 소망한다.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만찬과 환영 행사의 식탁에 제주 농수축산물을 올리자. 감귤 한 알에 생산자의 정성과 재배 이야기를 곁들이고 기념품에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를 담자. 품질·위생 관리와 안정적인 공급으로 쌓은 신뢰가 소비와 수출로 이어지도록 준비해야 한다. 제주에서 맺은 인연이 농가의 판로를 넓히고 청년에게 농촌의 미래를 꿈꿀 힘이 되기를 바란다.

유치 열망만큼 준비도 치밀해야 한다. 교통과 숙박·경호·의료 등을 점검하고 주민 불편을 줄여야 한다. 지역 농어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할 공급·조달 체계를 마련해 성과가 농가 살림과 지역경제에 닿도록 해야 한다.

우리 농촌지도자들도 깨끗한 농촌 환경과 믿고 먹을 농산물로 힘을 보태겠다. 이웃과 일손을 나누던 수눌음의 정신으로 도민의 뜻을 모으자. 제주의 정낭을 활짝 열고 농업인의 땀과 도민의 정성으로 세계를 맞이하자.

<(사)한국농촌지도자제주시연합회 회장>

10. 29.
제민일보 14